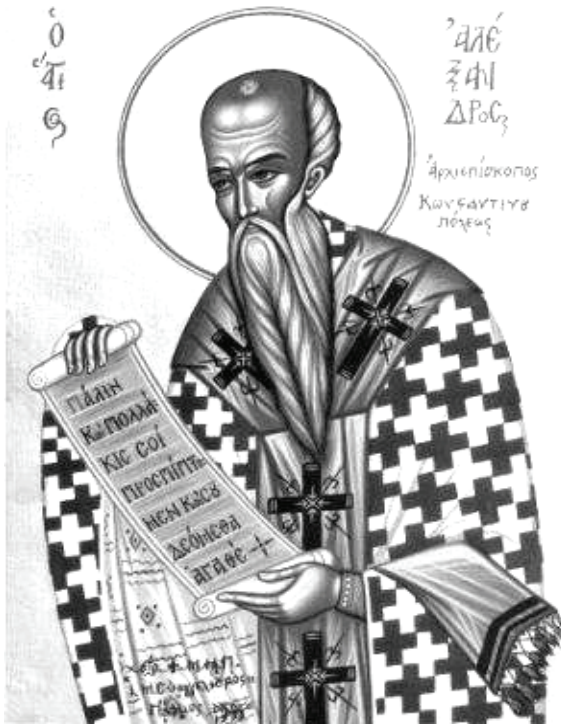




# 정교회 주보

정교회 한국대교구



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/ 8월 20일

## 마태오 제12주일

성 삐민 수사,  
성 파누리오스 수사

제3조 / 조과복음 1

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

- 제3조 부활 찬양송 / 82. A 213
- 주일 입당송 / 14. A 42
- 순교자 찬양송 / 84. B 265
- 성당 찬양송
-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/ 186. B 207
- 사도경: 고린토 전 15, 1-11 / 봉독서 220
- 복음경: 마태오 19, 16-26 / 115. B 50
-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.

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 
 “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 
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다면...”

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순간,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 지상에 오셔서 신인(神人)이 되신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

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,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기쁨에 날뛰는 것입니다.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어떠한 것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.

## 홀로 된 비참한 삶

한 병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태는 힘이 없어서, 감각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품에 안지 못하는 것입니다. 또한 병이 옴을 까봐 병자를 안아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입니다. 이럴 때 병자는 사람들로 부터 혼자 되고 큰 비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. 중환자실에 있는 혹은, 홀로 격리된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.

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병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육적으로 치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, 그들의 영혼의 홀로됨으로부터 영혼의 안도감을 주기 위해 안아주셨습니다.

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“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,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.”(마르코 6:5)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. 또한, 루카 복음사가는 “해 질 무렵에 이 집 저 집에서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께 데려왔다.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모두 고쳐주셨다.”(루카 4:40)라고 언급하였고, 그리고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

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안식일에 “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다.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.”(루카 13:13)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.

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와 똑같이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,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“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.”(마르코 16:18)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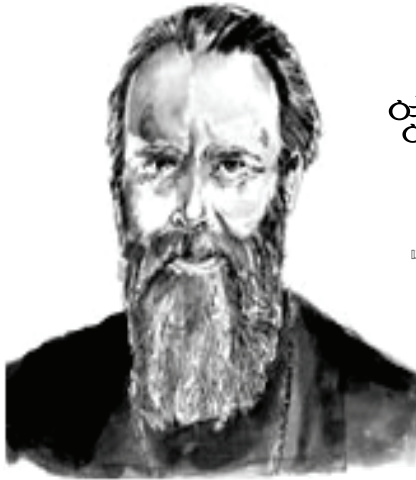
이러한 전승을 우리 교회의 성직자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. 어떤 병자가 있을 때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느님께 병자의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.

이렇게 손을 얹음으로 “성령”(사도행전 8:17 참조)을 받게 되고 영혼과 육신이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접촉(안아주는 것)의 언어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아픈 영혼을, 특히, 홀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†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





안토니 블룸 대주교

## 영적 아버지의 역할2

☞ 지난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.

영적 아버지를 구별 짓는 둘째 특징은 영적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명(共鳴, 울림)도 있어서 그를 잘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이것은 매우 중요한데,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물질—신체적이거나 또는 정서—영적인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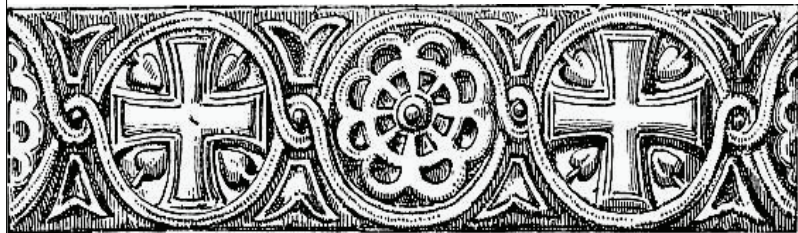
순종은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를 지도자로 선택하였을 때,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이 이제껏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, 영적 아버지의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든 것과 스스로를 다시 가다듬는 (자녀) 자신의 영적 경험을 통하여 그런 경험에 참여하며, 그때까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.

순종은 무엇보다도 들을 줄 아는 기술이고 선물인데, 단지 귀나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지닌 자신의 전 존재로 듣는 것이며,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신비를 정중하고도 삼가는 태도로 관상(觀想)하는 것이다.

아마도 영적 자녀를 낳았거나 또는 이미 태어난 자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(녀)의 아버지가 된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영적 자녀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경의(敬意)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.

☞ 다음 주 주보에 계속됩니다.

▶ 아타나시아



##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

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.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,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.

### 소 식

#### 대교구

##### ■ 교회연도 시작

오는 9월 1일(금)은 교회연도의 시작일입니다. 이날을 기해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에서도 특별한 성찬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교회연도의 축복된 시작을 기원합니다. 우리도 이날 성찬예배를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회연도를 영적으로 잘 시작하도록 합시다.

##### ■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

지난 8월 초에 '정교회 소기도서'와 '각종 예식서' 두 권의 새 책이 정교회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. 기존에 있었던 책들을 더 보충, 보완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출판하였습니다. 특히, '정교회 소기도서'는 우리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소지하면서 활용하면서, 영적

으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.

####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

##### ■ 예비 신자 교리반 가을 학기 개강

9월 10일(주일)부터 예비 신자 교리반을 개강합니다. 12주간으로 예배, 성사, 영성 생활이란 주제로 매주 주일 예배와 식사 후 1시~3시까지 진행됩니다. 대상은 봄 학기 수강 신자들과 아직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 정교회에 입문하지 않은 새로 나온 신자들 중 정교 신앙과 교리와 영성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분들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참가 신청서를 참고해주시고,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주간 예식

- 8월 29일(화) 세례자 요한의 참수 기념일
  - 8월 30일(수)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축일
  - 9월 1일(금) 교회연도 시작
- 각 축일 ▷ 오전 9시 : 축일 조과, 성찬예배



발행처 : 한국대교구 /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/ Tel (02) 362-6371 / Fax (02) 365-2698 / www.orthodoxkorea.org